

“현수막으로 소통”… 광주시, ‘감성행정’ 눈길

‘투표가 힘입니다’, ‘한강 고맙다’ 시대정신 담은 문구
오월주간에 ‘소년이 온다’ 글귀 인용… 미래 염원 공유
설명절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로 위로·희망 메시지

지난 1월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 시청과 전일빌딩245 외벽 등에는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겨울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아 설 명절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힘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호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간절하지만 울림 있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플래

카드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외에도 ‘투표가 힘입니다’,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로 행정 홍보의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 ‘투표가 힘입니다’라는 문구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이라는 문구를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에 대한 경의



를 표했다. 특히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오월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광주시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올해 오월주간을 앞두고 광주시청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문장인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글귀

가 담겼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5·18의 아픔을 기억하고, 당시 희생된 수많은 ‘소년’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광주시의 이 같은 현수막 홍보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정 홍보의 틀을 깨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도일 기자

북구,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선제적 예방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북구는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이며 백신을 접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코로나 백신 접종 기관으로 지정된 130여 개의 병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접종은 6월 말까지 진행되고 고위험군의 경우 기존에 접종을 완료했다더라도 90일이 경과했다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회당 15만 원이 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구비 3천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접종일을 기준으로 북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1960년 출생자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360여 명이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북구가 확보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 보건소(☎062-410-8121)로 유선 예약하면 되고 접종 당일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북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 사업이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9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기획부터 설계, 시공과 유지관리 전반까지 아우르는 「공공건축 건립사업 등 기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법령에 기반한 행정절차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필수 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다른 자치단체 매뉴얼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축물

서구, 공공건축 매뉴얼로 사업효율 높인다

기획~유지관리 전 과정 아우르는 통합형 매뉴얼

유지관리’ 단계까지 포함해 사후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공공건축사업은 절차가 복잡해 담당자가 전문 직렬이 아닐 경우 착오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서구는 반

복된 실무 경험과 문제 사례를 분석해 공공건축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실무 중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담당 주체를 명확히 제시해 실무자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추

진 시 최초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행정의 흐름에 맞춰 정리돼 있다.

매뉴얼 자문에 참여한 노성열 박사(광주광역시 기술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돼 완성도가 높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 책 읽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 대출은 관내 사회시설과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서관(무인 도서관) 반출 도서 중 기관 요구에 맞는 도서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동구는 올해 하반기 6~7개소 기관을 대

동구, 사회시설 등 기관 대상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

상으로 2천여 권을 대출할 계획이다. 대출은 원하는 기관은 동구 도서관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dlasjfdk@korea.kr)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도서관 누리

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택 동구청장은 “기관 대출을 통해 스마트도서관 반출도서의 실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책을 더욱 많이 읽길 바란다”면서 “관내 기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계림2동 마을사랑채, 광주 학생예술누리터, 체육예술인성교육과 등 3개소가 총 408권을 대출한 바 있다. 동구는 대출 및 연장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장 기간을 확대하고, 도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할 방침이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1974년 준공된 광주공장은 노후화된 데다 최근 화재로 주요 설비가 타버려 경영진이 재건을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공장을 합평 빗그린국가산업단지(약 15만 1250평)를 1160억8417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전 비용으로 총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 현재 광주공장 부지를 용도변경·매각해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특히 논란으로 광주시와의 용도 변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답보 상태였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비정규직과 화물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광주공장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은 공장 가동이 멈춘 후속해 대해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이

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휴직 상황”이라며 “근무 중인 소수 직원들을 위한 사내 식당 운영이 불가피해 일부 비정규직만 일하고 있다. 여성 가정이 많은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공장과 계약한 화물 노동자 19명은 타이어 운송업 말고는 다른 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장 가동이 멈췄다는 것은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도 멈췄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최소 생계라도 지원하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후보는 “지적하는 부분들을 단계 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측과 노동자, 하도급이 모두 연결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